

- 재정의 최대 지출항목은 사회보장 관련비용으로 2012년도의 경우 일반세출의 약 52%를 차지하고 GDP 대비 공적채무 잔고는 211.7%로 나타남.
- 공적채무의 상당 부문은 국공채로 조달되어 왔으나, 국공채 소화의 원천이었던 저축이 단카이 세대의 은퇴로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

■ 하지만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소비구조가 변하고 ‘보이지 않는 가족’의 등장, 고령자의 사회참여 증가,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등에 힘입어 새로운 유형의 소비와 생산이 늘어나는 추세

- 의료, 건강, 간병, 퇴직 후의 시간적 여유를 반영한 ‘시간 소비형’ 취미나 오락 활동 등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세대의 지출은 현역 세대보다 높음.
- 특히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노인이 돌보는 ‘老老케어’가 보편화됨에 따라 고령자의 사회참여의 장으로 NPO 활용이 늘어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킬 가능성
- 보이지 않는 가족(invisible family)과 같은 새로운 가족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레저용 차량, 다세대 여행패키지상품, 군락형 아파트 등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전망
- 또한 일본정부가 유니버설 디자인(universal design)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건축, 설계 등 관련산업이 발전

2.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

- 일본의 가계는 현금, 예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수익성, 유동성보다 안정성을 선호함.
 - 가계부문 금융자산 총액은 약 1,471조 엔으로 그 중 56.0%는 현금 및 예금으로 구성되며, 금융자산 보유목적은 ‘노후 생활자금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%를 초과
 - 이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“저축에서 투자로”라는 슬로건이 “투자에서 저축으로”로 바뀌고 있는 경제상황을 잘 반영
- ‘연금라이프’가 일반화되어 있는 가운데 고령자의 주요 소득원은 연금으로, 특히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.